

# 국힘, 총리 인준 표결 불참...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처리

### 쟁점 '3% 룰' 일부 보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추후 논의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표결을 거부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는 참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임명동의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모두 참여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리에 대한 재산·학위 의혹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소되지 않았기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 중앙홀에서 총리 인준 표결에 반대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일하는 내각의 첫 단추인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총리 인준 반대에 대해선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는 국민의힘의 도 넘은 국정 발목잡기를 참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방해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 청산 방책으로 간주해 국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에 이어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재

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난 셈이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 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후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대표 출마’ 박찬대, 일주일간 호남살이

### 오늘부터 5개 시·군 순회하며 민심 청취...9일 유튜브 공개 방송 초광역 인프라 투자 확대·국책사업 우선 배정 등 핵심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당대표 후보가 5일부터 일주일간 '호남살이'에 나선다. 호남 일정을 소화하면서 본격적인 호남 공들이기에 나서면서 광주·전남 핵심 공약도 내놨다.

당권 경쟁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공복선대위원장을 맡아 한 달 동안 호남살이를 한 바 있어 호남공약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이번 일정에서 최소 5개 호남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민심을 직접 청취한다. 박 후보는 청년·의료·에너지·산업·교육 등 지역 핵심 공약을 재확인하고, 실행 전략을 논의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5일 오후 2시에는 전북 전주대 JJ아트홀에서 당원 콘서트를 열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는 나주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해 전남 서부권 당

원 콘서트를 진행한다. 6일 오후 3시 30분에는 여수시민회관에는 전남동부 당원토크콘서트를 열고 다음날인 7일 오전 11시에는 광주시의회기자실에서 광주시 현안 및 정부 인사 호남추천 문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8일과 9일은 각각 전북 경정 투어(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및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 전남 경정 투어(공공의료 인프라와 해상 풍력 기반 신산업 육성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지만 시간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9일에는 호남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유튜브 공개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

이 기간 박 후보는 호남을 돌며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호남 공약을 제안 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초광역 인프라 투자 확대, 국책사



업 우선 배정, 지역인재 우선 채용 확대, 정당 차원의 예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약속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및 AI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전남 국립의대 설립,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금융 특화 도시 조성 등 광주·전남·북의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최대한 챙기 나갈 방침이다.

당원주권정당의 확장을 위해 ▲호남공약 전달 최고위원 지정: 분기별 이행점검 보고 체계화 ▲당대표 직속 '호남특별위원회' 설치: 지역 숙원·갈등 상시 청취 ▲국립의대 설립, AI·재생에너지 산업 집중 지원 등 핵심공약 실현 총력 등도 약속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압승은 물론 공정한 공천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김건희 특검 1호 수사는 '삼부토건'

### 압수수색 단행...3특검 첫 강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조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삼부토건 최대주주였던 디와이디 사무실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수사

망에서 제외돼온 김 여사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인 셈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첫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피의자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아울러 고강도 수사를 예상한 삼부토건이 본사를 이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본사는 애초 서울 중구에 있었으나 지난달 30일 돌연 종로구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문 특검보는 "이전(본사) 주소지와 현 주소지를 다 압수수색했다"며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